



언론의 책임

2015 - 3123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동아닷컴 발행인 김 일 흥
2. 한국미디어네트워크 발행인 조 상 현
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4. 조선닷컴 발행인 김 찬
5.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권 성 철

주문

동아닷컴(donga.com) 2015년 8월 28일자 「3세 의붓딸 수영장 물에 수차례 던져 익사시킨 '인면수심' 계부」 제목의 기사와 사진, 블로그(저널로그) 「수영장에 의붓딸 집어던져 살해한 새아빠 ... 'CCTV에 덜미」 제목의 게시물과 동영상, 한국미디어네트워크(hankooki.com) 8월 28일자 「무정한 계부, 3세 유아 익사할 때까지 수영장 물에 수차례 던져」 제목의 기사와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8월 27일자 「호텔 수영장 풀에 3살짜리 유아 던져 죽인 계부 '충격」 제목의 기사와 사진 및 동영상, 조선닷컴(chosun.com) 8월 27일자 「딸을 수영장에 던져 익사시키는 양아버지」 제목의 기사와 사진 및 동영상, 파이낸셜뉴스(finnews.com) 8월 28일자 「'던지고 또 던지고'.. 수영장에 딸 수차례 집어던져 살해한 새아빠」 제목의 기사와 사진 및 동영상에 대하여 각각 '경고'한다.

이유

1. 동아닷컴, 한국미디어네트워크(데일리한국), 서울신문, 조선닷컴, 파이낸셜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동아닷컴 1) = 『3세 의붓딸을 수영장 물 속에 수차례 집어던져 익사시킨 인면수심(人面獸心) 계부가 체포됐다.

기사입력 2015.08.27 14:42:32

26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미러는 멕시코 미초아칸 주(州) 모렐리아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3세 의붓딸을 물 속에 반복적으로 집어던져 익사시킨 계부 A 씨

가 체포됐다고 현지 언론 프로세스(Proceso)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12일 호텔 수영장에서 의붓딸을 물속에 수차례 집어 던졌다. 그는 물속에서 버둥거리는 어린 딸을 지켜보다 꺼내준 뒤 다시 집어던지는 행동을 반복했고, 아이는 결국 이날 숨을 거뒀다. 사건 발생 당시 아이의 어머니는 호텔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사진=콰드라틴 뉴스(Quadratin News) 방송화면 캡처

현지 언론 콰드라틴 뉴스(Quadratin News)는 이 충격적인 장면이 담긴 호텔 CC(폐쇄회로)TV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영상에는 긴장한 체격의 A 씨가 의붓딸을 들어올려 가차 없이 수영장 물속에 내던지는 장면이 담겨 있다. 그는 허우적거리는 딸을 꺼내 다시 물속에 집어던지는 행동을 반복한다.

수영장 안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에는 마치 놀이를 하는 듯 아이를 품에 안고 같이 물속에 뛰어들 뒤 안 보이는 곳에서 아이를 물속에 집어넣는다. 심지어 그는 아이가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아이를 붙잡고 있기 까지 한다.』

〈<http://global.donga.com/View?no=28921>〉

(동아닷컴 2(저널로그))= 『수영장에 의붓딸 집어던져 살해한 새아빠 ...
'CCTV에 털미'

by B on 8.28,2015 in 해외이슈

새 아빠가 올해 3살에 불과한 어린 의붓딸을 수영장에 반복적으로 집어던져 살해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지난 26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멕시코 모렐리아(Morelia) 시(市)에 위치한 한 CCTV에 한 남성이 자신의 의붓딸을 살해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충격적인 동영상은 12일 오후 호텔 수영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영상에는 새 아빠가 3살 의붓딸을 수영장에 반복해서 던지는 장면이 담겨 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새 아빠는 아내가 잠이 든 사이 놀아준다며 의붓딸을 데리고 수영장으로 갔다.

그리고 새아빠는 의붓딸에게 “재미있게 해 줄게”라고 말한 뒤 수영장의 깊은 물 속으로 집어 던졌다. 새 아빠의 생동은 의붓딸이 지쳐 사망할 때까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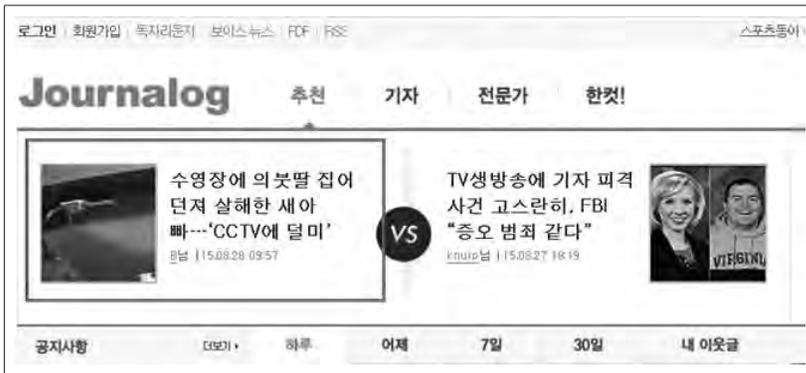
새아빠는 잠시 뒤 엄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고, 의도적이 살인이 맞으며 뚜렷한 이유는 없었다고 추후 조사과정에서 고백했다.

현재 경찰은 새아빠를 1급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http://blog.donga.com/realistb/archives/1004>>

※ 동아닷컴 저널리즘 초기화면



(데일리한국)= 『3세 의붓딸을 수차례 수영장에 던져 익사시킨 남성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황○○ 기자 h***ang@hankooki.com

입력 2015.08.28 07:53:08 수정 2015.09.01 10:37:50

수영장에 아이를 던져 익사시킨 한 계부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영국 메트로는 26일(현지 시간) 멕시코의 한 호텔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사진= Cambodia express news 화면 캡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남성은 자신의 아내와 의붓딸과 함께 멕시코 서남부의 미초아칸 주 주도 모렐리아의 호텔에 묵었다. 그는 아내가 호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세 살 난 의붓딸을 수영장 물속으로 수차례 집어 던졌다.

당시 CCTV 영상에서는 물에서 발버둥 치며 숨을 헐떡거리는 아이를 남성이 물속으로 잡아 끌어당기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 남성은 이 같은 행동을 수차례 반복하더니 CCTV 화면 밖으로 잠시 사라졌다가 돌아와서는 구조 튜브를 물속으로 던졌다. 하지만 아이는 튜브를 붙잡지 못했고 끝내 익사했다.

이 사실을 안 아이의 어머니가 경찰을 불렀고 이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된 후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http://daily.hankooki.com/lpage/world/201508/dh20150828075308138420.htm>>

(서울신문)= 『호텔 수영장 풀에 3살짜리 유아 던져 죽인 계부 ‘충격’』



한 호텔 수영장에 유아를 던져 죽이게 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멕시코 사회가 공분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지난 12일 멕시코 남서부 미초아칸 모렐리아 시(市)의 한 호텔 수영장 풀에서 자신의 의붓딸을 살해하는 남성의 CCTV 영상을 기사와 함께 보도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03ExddPff&feature=player_embedded> (동영상 URL)

이 충격적인 영상에는 12일 오후 호텔 수영장에서 3살짜리 의붓딸을 반복해 풀에 집어 던지는 모습이 담겨 있다. 새아빠는 깊은 물 속으로 의붓딸을 집어 던졌으며 그녀가 지쳐 사망할 때까지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사건 당일 3살짜리 딸이 죽어가는 동안 엄마는 호텔 방에

서 잠이 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새아빠는 의붓딸에게 의도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엽기적인 행각으로 의붓딸을 살해한 새아빠는 아이 엄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영상= CEN/NewsUP youtube 영상팀 seoultv@seoul.co.kr 2015.08.27
<<http://stv.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827500261>>

(조선닷컴)= 『딸을 수영장에 던져 익사시키는 양아버지

입력 2015.08.27 13:32 수정 2015.08.27 13:36



<https://www.youtube.com/watch?v=JSzWyAa8eJE&feature=player_embedded> (동영상URL)

계부가 딸을 반복적으로 호텔 수영장에 던집니다. 지난 8월12일 멕시코 남서부의 미초아칸 주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얼핏 보면, 수영장 내에 다른 사람들도 있어서, 아이를 물 속에 던져 즐겁게 하려는 놀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양아버지가 세살된 딸 모렐리아를 이 호텔 수영장에 던져 익사시키는 동영상입니다. 호텔 CCTV에는 아이가 살려고 발버둥치고, 나중에는 함께 물에 뛰어든 양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계속 물 속에 잠기게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살해 당시 아이의 친엄마는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구명 부표를 던지지만, 아이는 그걸 잡기엔 너무 약했습니다. 멕시코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27/2015082701631.html

(파이낸셜뉴스)= 『‘던지고 또 던지고’.. 수영장에 딸 수차례 집어던져 살해한 새아빠

입력 2015.08.27 15:11 수정 2015.08.27 15:11



최근 멕시코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세 살짜리 의붓딸을 수영장에 반복적으로 집어 던져 살해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12일 멕시코 중부 모렐리아 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남성이 자신의 의붓딸을 수영장 속으로 반복해서 던지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포착됐다.

이 남성은 엄마가 방에서 잠든 사이 같이 놀아주겠다며 의붓딸을 데리고 수영장으로 갔다. 그리고는 의붓딸에게 “재미있게 해준다”며 높이 들어 올린 뒤 수영장 물 속으로 집어 던졌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은 마치 물건이라도 집어 던지듯 아이를 내던져 버리고, 아이는 물속으로 깊게 빠져들었다가 다시 올라온다.

이어 이 남성은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주는 듯 했지만 결국 그의 행동은 의붓딸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때까지 계속됐다.』

(<http://www.fnnews.com/news/201508271116239466>)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동아닷컴, 한국미디어네트워크(데일리한국), 서울신문, 조선닷컴, 파이낸셜뉴스는 최근 멕시코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세 살짜리 의붓딸을 수영장에 반복적으로 집어 던져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전하면서 이 남성이 아이를 물속에 던지는 장면과 물에 빠진 아이가 허우적거리는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다. 또 동아닷컴(저널로그)과 서울신문, 조선닷컴, 파이낸셜뉴스는 문제의 동영상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 매체의 이 사건 보도는 그 자체로도 끔찍하고 잔인한 사진과 동영상을 게재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

“건장한 체격의 A 씨가 의붓딸을 들어 올려 가차 없이 수영장 물속에 내던지는 장면이 담겨 있다. 그는 허우적거리는 딸을 꺼내 다시 물속에 집어던지는 행동을 반복한다. 수영장 안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에는 마치 놀이를 하는 듯 아이를 품에 안고 같이 물속에 뛰어든 뒤 안 보이는 곳에서 아이를 물속에 집어

넣는다. 심지어 그는 아이가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아이를 붙잡고 있기까지 한다.”(동아닷컴)

“당시 CCTV 영상에서는 물에서 발버둥 치며 숨을 헐떡거리는 아이를 남성이 물속으로 잡아 끌어당기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 남성은 이 같은 행동을 수차례 반복하더니 CCTV 화면 밖으로 잠시 사라졌다가 돌아와서는 구조 튜브를 물속으로 던졌다. 하지만 아이는 튜브를 붙잡지 못했고 끝내 익사했다.”(테일리한국)

“의붓딸에게 ‘재미있게 해준다’며 높이 들어 올린 뒤 수영장 물 속으로 집어 던졌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은 마치 물건이라도 집어 던지듯 아이를 내던져 버리고, 아이는 물속으로 깊게 빠져들었다가 다시 올라온다. 이어 이 남성은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주는 듯 했지만 결국 그의 행동은 의붓딸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때까지 계속됐다.”(파이낸셜뉴스)

이렇듯 끔찍한 표현을 사용하며 유튜브로 공개된 아이 살해 장면을 ‘생생하게’ 중계한 것이나 다름없는 위 보도는 생명을 중시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를 보호하고 아껴야 할 언론의 기본 책임과 윤리를 저버린 것이다. 참고로 이들 5개 매체를 제외하면 다른 국내 매체는 위 내용을 아예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하였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138 신문윤리강령 위반

코리아타임스 발행인 이창섭

주문

코리아타임스(koreatimes.co.kr) 2015년 9월 16일자 「마피아 두목과 인권 운동가의 감옥 안 충격적 성관계 영상」 제목의 동영상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코리아타임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피아 두목과 인권 운동가의 감옥 안 충격적 성관계 영상』

Posted 2015.09.16 17:10 Updated 2015.09.17 18:11

러시아 중심부 스페르들롭스크 주에 있는 감옥에 수감된 러시아 마피아 두목과 그의 감옥 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주 방문하던 인권 운동가의 감옥 안 성관계 영상이 공개돼 러시아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가 이 소식을 15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마피아가 수감된 교도소의 감독관들은 그동안 마피아와 인권 운동가의 긴 면회시간을 의심해왔다. 그들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고, 그들이 면회 시간을 이용하여 감옥 안에서 성관계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동영상이 지역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 노출되기 전까지 이 인권 운동가 여성은 감옥을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한편, 이 동영상을 본 많은 러시아 사람들은 ‘마피아가 감옥 안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면서 항의했다.



<http://www.koreatimes.co.kr/www/news/world/kr/524_186976.html>

※참고 1: 해당 동영상 끝난 뒤 나타난 화면





※참고 2: 코리아타임스 홈페이지 초기화면

	<p>최지우 주연 tvN '두번째 스무살' 시청률 6% 돌파 배우 최지우 주연의 tvN 금토드라마 '두번째 스무살'이 시청률 6%를 돌파하며 인기를 증명했다. 19일 밤...</p>	<p>표범과 흑멧돼지의 울어주는 싸움 그 결과는?</p>
	<p>유연석, SBS '미세스 캅' 특별출연...국과수 부검의 역 배우 유연석(31)이 SBS TV 월화드라마 '미세스 캅'에 특별 출연한다고 SBS가 20일 밝혔다. 유연석...</p>	<p>마피아 두목과 인권 운동가의 감옥 안 충격적 성관계 영상</p>
	<p>천정배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 선언..."내년1월 완료"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20일 "한국정치를 전면 재구성할 '개혁적 국민정당'의 창당을 제안한다"며 독자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고 '12월까지 ...</p>	

<캡처시각 09.18. 14:02>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러시아 중심부 스베르들롭스크주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된 러시아 마피아 두목과 그의 감옥 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주 방문하던 인권 운동가의 교도소 안 성관계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동영상도 함께 실었다. 교화 장소인 교도소 안에서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도 문제이지만, 해당 동영상이 끝난 뒤 다양한 성관계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더욱 문제다. 영화나 일반인이 올린 성애장면은 물론 성기가 드러난 섹스돌의 모습까지 나온다. 이는 유튜브와 아웃링크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영상이 끝난 뒤 자동적으로 종료되도록 차단할 필요가 있다. 동영상을 게재할 때에는 기술적인 실수, 또는 오류로 인해 섹스 동영상이 노출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이 같은 동영상 편집은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 3001 신문윤리강령 위반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이영만

주문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5년 11월 27일자 「논란의 ‘소라넷 ... ’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코리아헤럴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논란의 ‘소라넷 …’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Published 2015.11.26 14:05 Updated 2015.11.26 16:31

지난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소라넷,’ 국내 최대의 음란 성인사이트로 올여름 화두였던 “워터파크 몰카” 유출의 근원지이기도 하다. 그간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계속해서 주소를 바꾸면서 범망을 교묘히 피해왔다. 그러나 최근 강신명 경찰총장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면적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혀 또다시 화제가 됐다.

1. 소라넷 트위터 계정을 통해 사이트 주소를 확인

이들은 지속적으로 서버를 옮겨 트위터에 이를 공지한다. 트위터 페이지에 접속해 url 주소를 클릭해 사이트로 이동한다.



〈소라넷 트위터 캡처〉

2. 소라넷 홈페이지

눈을 찌푸리게 하는 자극적인 글과 광고, 음란 사진들로 가득한 첫 화면.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들여다볼 수 없는 지경이다. 몰래 회원가입을 해봤다.



3. 회원가입

미성년자의 사이트 가입 방지를 위해 가입자의 생년월일을 기입하도록 했지만, 이 또한 유명무실하다. 가명과 가짜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클릭해봤다. 가입이 승인됐다.



〈소라넷 회원가입 화면, 미성년자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다〉

4. 게시물

더욱 놀라운 것은 페이지 내 게시물들의 실태였다. 자신의 아내나 여동생이 샤워하는 모습부터 각종 공중화장실, 지하철 물래 카메라, 심지어 여성의 술에 약을 타 숙박업소로 데리고 왔다는 글까지.



〈소라넷 게시물 캡처. 한 남성은 자신의 아내의 샤워 중인 나체를 버젓이 게시판에 올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불법 성매매와 강간모의, 기혼자 간의 집단 성관계 모의까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경찰이 전면 수사에 나서겠다는 선진포고를 했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소라넷이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소라넷 측은 “21세기 성인들의 볼 권리를 막으려는 시대착오적인 일”이라며 주장하고 나서 또다시 공분을 사고 있다.

(khnews@heraldcorp.com)』

<http://khnews.koreaherald.com/view.php?ud=20151126000772&kr=1&md=20151127003049_BL&kr=1>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국내 최대의 음란물 사이트인 ‘소라넷’에 기자가 직접 가입하는 과정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서버를 옮기니 트위터 페이지에 접속해 url 주소를 클릭하라 △가명과 가짜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클릭해봤다. 가입이 승인됐다 △미성년자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다 등 사실상 가입 방법을 자세히 알려 주고 있다. 게다가, 비록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곤 하나 단계별로 화면을 캡처해 보여 주는 등 일반적인 가입 안내문과 똑같은 방식을 취했다.

나아가 한 남성은 자신의 아내가 샤워 중인 모습을 게시판에 올렸다고 밝히고 그 사진을 실는 등 오히려 호기심을 부추겼다.

코리아헤럴드가 이 기사를 다룬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기사를 처리한 방식을 보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클릭 수를 늘리려고 소라넷 가입을 안내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소라넷의 폐해는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고발기사라 하더라도 이 같은 보도는 불량 사이트의 접속방법과 그 내용을 소개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책임있는 언론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 3073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세 정
2.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3. 每日新聞 발행인 여 창 환

주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5년 5월 20일자 「백재현, 20대男 주요부위를 ... 경찰 내부문건 유출 '경악」 제목의 기사,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5월 20일자 「백재현 성추행 혐의, 경찰 내부 문건 유출 ... 사건개요-신상공개 '논란」 제목의 기사, 每日新聞(imaeil.com) 5월 20일자 「백재현, 성추행 관련 경찰 문서 유출! 전과2범 ... 충격」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아시아경제 스포츠조선 每日新聞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아시아경제)= 『백재현, 20대男 주요부위를 ... 경찰 내부문건 유출 '경악』

최종수정 2015.05.20 16:22 기사입력 2015.05.20 1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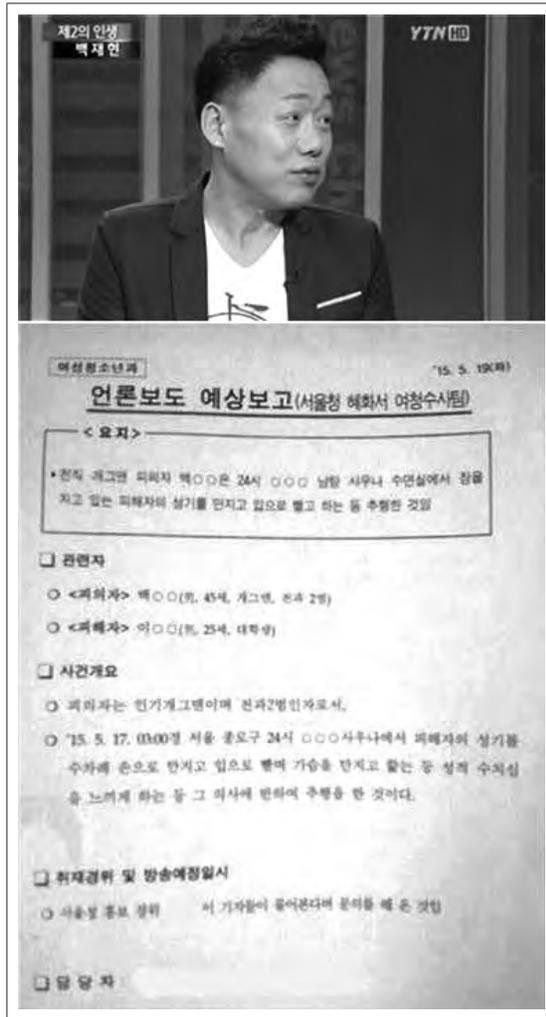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개그맨 겸 연극연출가 백재현(45)이 사우나에서 2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경찰 내부 문건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한 매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백재현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언론보도 예상보고(서울청 해화서 여청수사팀)'라는 경찰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서에는 백재현과 피해자 이모(25) 씨의 신상은 물론 당시 사건 정황이 상세하게 적혀있다.

문서에 따르면 백재현은 전과 2범으로 지난 17일 새벽 3시께 서울 종로구 한 사우나에서 이모 씨의 성기를 수차례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며 가슴을 만지

고 활는 등 추행을 했다.



백재현. 사진= YTN 방송화면 캡처/온라인커뮤니티

이에 앞서 서울 해화경찰서는 사우나에서 2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백재현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백재현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52015525197840>

(스포츠조선) = 『백재현 성추행 혐의, 경찰 내부 문건 유출 ... 사건개요-신상공개 '논란'』

기사입력 2015.05.20 12:09:49 최종수정 2015.05.20 14:32:49

백재현 성추행 혐의

개그맨 백재현이 남성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관련된 경찰의 보고서가 온라인상에 유출됐다.



20일 한 매체는 “온라인 사이트 및 SNS에 백재현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언론보도 예상보고(서울청 해화서 여청수사팀)’이라는 문건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서에는 피의자 백재현과 피해자 이모 씨의 신상이 나와있다. 또 ‘피의자는 인기 개그맨이며 전과 2범인 자로서 2015년 5월 17일 3시경 서울 종로구 24시 000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했다’며 사건 개요가 상세하게 적혀있다.

경찰의 내부문건이 유출되면서 피해자의 신상까지 공개되는 등 정보관리에 허점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한편 백재현은 성추행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동성연애자가 아니며, 단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

〈<http://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1505210100227000015909&ServiceDate=20150520>〉

(每日新聞)= 『백재현, 성추행 관련 경찰 문서 유출! 전과2범 ... 충격』

2015.05.20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백재현, 성추행 관련 경찰 문서 유출!

개그맨 출신 연출가 백재현이 17일 3시께 서울 명륜동 모 사우나에서 20대 남성을 상대로 성기를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성추행)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경찰 내부 문건이 유출됐다.

한 매체는 “온라인 사이트 및 SNS에는 백재현 성추행 혐의와 관련 ‘언론보도 예상보고’라는 문건이 공개됐다”며 해당 문건에 대해 말했다.

이 문서에는 피의자 백재현과 피해자 이모 씨의 신상과 더불어 성추행 사건의 개요 등이 적혀있다. 문서에는 ‘피의자는 인기 개그맨이며 전과2범인자로서, 2015년 5월 17일 3시 경 서울 종로구 24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수 차례 만지고 입으로 빨며 가슴을 만지고 핏을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한 것이다’라고 적혀있다.

또한 백재현의 신상에 ‘전과 2범’이라고 적혀 있다. 백재현의 성추행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일 한 매체는 “백재현은 지난 2000년 고정페넬로 활동 중이던 SBS ‘진실게임’에 출연한 K씨(당시 19세)에게 접근해 성희롱을 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K씨는 연예인이 꿈이었고 백재현은 사인을 해주며 전화번호를 물어봤다. 이후 백재현은 연락을 해 K씨의 집에 찾아가기도 했으며 '사랑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K씨는 “백재현이 집으로 불러 “아빠와 아들처럼 지내자”며 스킨십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백재현은 1993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최근 대학로에서 연극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http://www.imaa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8318&yy=2015#axzz3ajQua3eK>

2. 위 보도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개그맨 백재현이 사우나에서 2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과 관련, 수사 중인 해당 경찰서 내부 문건(언론보도 예상보고)이 온라인에 공개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 요약보고서를 인용해 범행 상황을 기술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수차례 만지고 입으로 빨며 가슴을 만지고 핏는” 등 동성 간의 성행위를 지나치게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스포츠조선은 기사 본문에 이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해당 문건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문제의 표현(성기를 빨고 가슴을 만지고 핏는)을 한 셈이 됐다.

일반인의 정서에 반하는 범죄행위를 보여주기 위해 사실대로 묘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칫 선정적인 보도가 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아직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 층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주는 동시에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한편 이들 언론사는 경찰의 해당 문건을 함께 게재하였는데, 공식 수사문건은 아니더라도 유출된 경찰 내부 문서를 공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언론사 및 수사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피의사실을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도, 공식 절차에 따라 피의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없도록 공표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근거해 일정한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수사와 관련된 경찰의 문건을 그대로 게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인 데다, 해당 문건에서 담당자의 이름을 지워 문서를 유출한 경찰관이 특정되지 않도록 한 노력은 보이나 혜화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적시됨으로써 해당 경찰관의 피의사실공표죄 위반 혐의가 만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위 기사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083 신문윤리강령 위반

새전북신문 발행인 박 명 규

주문

새전북신문(sjbnews.com) 2015년 5월 17일자 「커뮤니티」의 「알림게시판」 게시물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새전북신문의 위 적시 게시물 내용은 다음과 같다.

Sjbnews.com 최후편집: 5/17 일 20:29
 새싹이 피는 5월 17일입니다 [검색] [자세히]

뉴스 | 주일판 | 사랑과 일상 | 블로그 | 커뮤니티 | 시민연락국

고종(제10대) | 세종(제4대) | 조선(제1대) | 조선(제2대) | 조선(제3대) | 조선(제4대) | 조선(제5대)

• 알림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가	성부	날짜	조회
3019	코리안리더스 대상 특재가새기,홍범개조기,심희거를 소개해드립니다.	코리안리더스	엔	2015-05-15	7
3018	★음대농촌기행부업(우부거촌/당일지급)★	김수경	-	2015-04-28	91
3017	★음대농촌기행부업(우부거촌/당일지급)★	김수경	-	2015-04-28	164
3016	작은 꿈구 [3편]	스미	-	2015-04-27	194
3015	키 지노 아이디 DOA12.COM [J730]	hoen999	-	2015-04-24	215
3014	키 지노 아이디 DOA12.COM [VE7H8]	hoen999	-	2015-04-24	211
3013	키 지노 아이디 DOA12.COM [m30V5]	hoen999	-	2015-04-24	197
3012	키 지노 아이디 DOA12.COM [m8GA9]	hoen999	-	2015-04-24	198
3011	키 지노 아이디 DOA12.COM [y6GG7]	hoen999	-	2015-04-24	202
3010	키 지노 아이디 DOA12.COM [u55C9]	hoen999	-	2015-04-24	205
3009	키 지노 아이디 DOA12.COM [hL7P5]	hoen999	-	2015-04-24	202
3008	키 지노 아이디 DOA12.COM [yH9N5]	hoen999	-	2015-04-24	205
3007	키 지노 아이디 DOA12.COM [wG2]	hoen999	-	2015-04-24	194
3006	키 지노 아이디 DOA12.COM [xE4G5]	hoen999	-	2015-04-24	208
3005	ss	hoen999	-	2015-04-24	180
3004	키 지노 아이디 DOA12.COM [VF6E8]	hoen999	-	2015-04-24	204
3003	키 지노 아이디 DOA12.COM [mM411]	hoen999	-	2015-04-24	197
3002	키 지노 아이디 DOA12.COM [mM411]	hoen999	-	2015-04-24	200
3001	키 지노 아이디 DOA12.COM [7V9R8]	hoen999	-	2015-04-24	207

<캡처시각 15.05.17. 23:45>

Sjbnews.com 최후편집: 5/17 일 20:29
 새싹이 피는 5월 17일입니다 [검색] [자세히]

뉴스 | 주일판 | 사랑과 일상 | 블로그 | 커뮤니티 | 시민연락국

고종(제10대) | 세종(제4대) | 조선(제1대) | 조선(제2대) | 조선(제3대) | 조선(제4대) | 조선(제5대)

• 알림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가	성부	날짜	조회
2999	하루에 3시간만 투자 [2015]	니지	엔	2015-01-22	542
2998	정월대보름 맞이 귀넷이슬 후기 특강 안내	김종호	엔	2015-01-22	448
2997	남33 원앙지은 마르비아트	성재갑	-	2015-01-20	466
2996	시간제 아르바이트(급여해설)	민아람	-	2015-01-16	525
2995	홍익/수달 아르비아트	신서경	엔	2015-01-16	470
2994	연말부담 요즘 내세우면 -> 장학금	김민정	-	2015-01-15	565
2993	2~3시간 2만번사라잡박달바 (당일지급)	김희정	-	2015-01-15	581
2992	신년이벤트	관민자	엔	2015-01-14	563
2991	*성실한/남/여/구/나/가능한 연수업무	북한자	-	2015-01-14	602
2990	DMPLD기	박민선	-	2015-01-13	549
2989	편한 재택부업하면서 높은급대 받아부세요^^ (초보가능)	김지연	-	2015-01-12	577
2988	*달같은 마음으로 남요호안계로 함께 할	yeop	-	2015-01-08	617
2987	남33 아르비아트 모집	성재갑	-	2015-01-08	588
2986	비리리교수 비리리교수-47 P T V N B, S D M e J V	정민규	-	2015-01-07	514
2985	당 3는 시간 자유로워/주부부업/직장인부업	김지영	-	2015-01-06	662
2984	홍익, 주말 아르비아트 모집 (재택업무 재직근무)	최가을	-	2015-01-04	655
2983	재택업무 기회많은 아르비아트 모집	유민희	-	2015-01-04	606
2982	회기적인 연이후에, 온라인 유통자료	박향숙	-	2015-01-04	650

<캡처시각 15.05.17. 23:45>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새전북신문은 자사 사이트 「커뮤니티」 코너의 하위 디렉토리에 「알림게시판」이라는 난을 두고 있다. 5월 17일자 「알림게시판」에는 카지노사이트가 대거 소개되고 있는데, 별도의 클릭이 없어도 「텍사스카지노」에 연결되도록 처리되어 있다.

또한 이 날짜 「알림게시판」 코너의 3페이지를 열어보면 2015년 1월 14일에 「관리자」라는 이름으로 올린 「신년이벤트」라는 게시물을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카지노사이트 광고물이다. 만에 하나 이 게시물을 사이트 관리자가 올린 것이라면 이는 신문사가 사설게임을 소개한 셈이므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설혹 사설게임업자가 「관리자」라는 이름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실제 관리자는 빠른 시일 내에 이 게시물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 6월 1일 현재 게시판은 상당히 정돈되어 있으나 일부 게시물은 여전히 변함없는 상태로 방치돼 있다. 온라인신문의 게시판은 남녀노소가 모두 접속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이를 운영하는 언론의 책임은 막중하다.

따라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089 신문윤리강령 위반

충청타임즈 발행인 박재규

주문

충청타임즈(cctimes.kr) 2015년 2월 12일자 「무죄 판결 ... 또 한고비 넘겼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충청타임즈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5.05.20. 14:27 캡처>

『“무죄 판결 ... 또 한고비 넘겼다”김병우 충북교육감, 6개월여 불안했던 심경 토로

입력 2015.02.12 수정 2015.02.11 20:27

○...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사진)이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불안했던 심경을 최근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인 카카오토리에 토로.



김 교육감은 “온갖 진기록을 세우며 진행되어 온 저의 선거법 관련 두번째 재판 제1심이, 오늘 드디어 6개월여만에 무죄 판결로 또 한 고비를 넘겼다”고 밝힌 뒤 “실체적 진실을 가려보고 사법정의를 세우신 재판부에 더할 나위 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라며 그동안 무거웠던 심정을 표현.

그는 “그동안 마음 졸이시며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좋은 소식 드릴 수 있게 되어 한없이 기쁘고 감사하다”며 “남은 재판에도 성실히 임해 충북교육이 더 이상 흔들림 없이 도약할 수 있도록 탄탄히 이끌겠다”고 피력.

변함없이 따뜻이 지켜봐 주시면서 끝까지 함께 해달라며 남은 재판에 임하는 심경도 언급.

김○○기자』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399853>〉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김 교육감이 재판 결과 뒤 “실체적 진실을 가려보고 사법정의를 세우신 재판부에 더할 나위 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라며 “남은 재판에도 성실히 임해 충북교육이 더 이상 흔들림 없이 도약할 수 있도록 탄탄히 이끌겠다”고 피력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 보도일자가 2015년 2월 12일인데도 5월 20일 현재 충청타임즈 초기화면 〈SNS의 세상, 그곳에는〉 코너에 그대로 실고 있어 2심과 최종심에서도 무죄를 받기 위해 애쓰고 있는 김병우 도교육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 코너는 2014년 8월 개설한 이래 그 달에 집중적으로 기사를 게재한 뒤 이후 한 달에 한번 꼴로 게재해 오다 중단된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공정성이 의심되는 기사를 눈에 띄는 곳에 장기간 게재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온라인편집은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101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준식

주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5년 6월 3일자 「대선 출마 선언 의원 '변태 성관계' 글 논란」이라는 제목 등 온라인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알샤르미는 2일자

hskang@yna.co.kr

<연합뉴스>

- 누드사진 논란 지
- '동물과 성관계' 험
- [영상] 유승준, 카
- 할아버지에 "오빠
- 작년 서울지하철
- 삼성컴퓨터 '10만
- '어벤져스2' 개봉
- 컴퓨터 최저가 C

지원이, 초말학 레깅스 '마운드 장악'

강남30대 "실직男" 슈퍼카탄 사연 대공개

대선출마선언 의원 '변태 성관계' 글 논란

100억대 로또1등의 비밀?



기사입력 2015-06-03 10:58:54

동거녀 두말에게 8년간 뭍슬짓...성폭행

공할면세 '망했다' 男, 女 명품 75% SALE

지원이, 초말학 레깅스 '마운드 장악'

<캡처시각 15.06.03. 17:57>

<[http://sports.chosun.com/news/news.htm?id= 20150603000000000000002221&ServiceDate= 20150603](http://sports.chosun.com/news/news.htm?id=20150603000000000000002221&ServiceDate=20150603)>

1. 「대선 출마 선언 의원 ‘변태 성관계’ 글 논란」

『음주운전 무마해주겠다’ … 女운전자 성추행 경찰 구속

기사입력 2015.06.03 07:44:43

술을 마시고 불법유턴을 한 여성을 경찰서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경찰관이 결국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여성 운전자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면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48) 경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인 김 경위는 지난달 16일 오전 3시15분께 강남구청담동의 한 대형호텔 앞 도로에서 외제차를 몰고 가다 불법 유턴한 여성 운전자 A(33) 씨를 적발해 경찰서로 데려온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A씨에게 500만원을 요구하고 음주측정기를 대신 부는 수법으로 결과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경위를 중징계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추궁할 방침이다.

h***gch@yna.co.kr <연합뉴스>』

<<http://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1506030000000000002629&ServiceDate=20150603>>

2. 「동거녀 두딸에게 8년간 몸쓸 짓...성폭행」

『식사를 합시다2 종영, 서현진 황승언 알몸 탈의에 경악 “같은 여자라도 싫어”

기사입력 2015.06.03 10:58:54

배우 황승언이 서현진 앞에서 파격 알몸 탈의를 시전했다.

2일 방송된 ‘식사를 합시다2’ 마지막회에서는 구대영(윤두준)이 세종빌라를 떠난 뒤 백수지(서현진)와 황혜림(황승언)과의 동거가 전파를 탔다.

이날 백수지는 점심 밥상을 차리며 황혜림의 게으름에 혀를 찼다. 이어 목욕

가운을 두르고 나타난 황혜림은 밥상을 보며 “이게 다예요? 언니?”라면서 “국물이 없다. 할머니는 국물이랑 같이 먹으라고 국이랑 찌개랑 매 끼니마다 차려 주셨다”고 말해 백수지를 분노하게 했다. 눈치를 살펴본 황혜림은 “그런데 이게 건강에 더 좋다. 국이랑 찌개는 나트륨이 많아서 몸에 안 좋다”며 금세 꼬리를 내렸다.

이후 황혜림은 “머리만 말리고 밥 먹을게요”라면서 목욕가운을 벗어던져 백수지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에 백수지는 “어우야, 옷 좀 입고 다녀”라며 “같은 여자라도 싫다”고 경악했다. 이어 “황혜림이 서울 올라간다 했을 때 그냥 보내 버릴걸. 월세 좀 나눠 내겠다고 이게 뭐야”라고 탄식해 웃음을 자아냈다. <스포츠조선닷컴>』

<http://sports.chosun.com/news/news.htm?id=201506040100038400002404&ServiceDate=20150603>

3. 「지원이, 초밀착 레깅스 ‘마운드 장악」

『英축구 레스터시티 선수 집단 성관계 동영상 파문』

기사입력 2015.06.03 07:48:18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레스터시티가 소속 선수들이 등장하는 섹스 비디오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신문 선데이미러는 지난달 31일 자에 “레스터시티 소속 선수 세 명이 태국 여성들과 집단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입수했다”며 “이 중 한 명은 태국 여성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했다”고 보도했다.

레스터시티 구단 대변인은 이 보도에 대해 “영상에 나오는 선수는 톰 호퍼, 제임스 피어슨, 애덤 스미스 등 세 명으로 확인됐다”며 진상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가운데 피어슨은 이 구단 감독인 나이젤 피어슨의 아들이다.

레스터시티는 태국 사람인 비차이 스리바다나프라바가 구단주로 2014-2015 시즌을 마친 뒤 현재 태국을 방문해 친선 경기 등을 치르고 있다.

2013-2014시즌 2부리그인 리그 챔피언십에서 1위를 차지해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한 레스터시티는 2014-2015시즌 14위에 올라 프리미어리그 잔류에 성공했다.

레스터시티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해당 선수와 면담을 마쳤으며 이들을 곧 영국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lid@yna.co.kr <연합뉴스>」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 6월 3일자 홈페이지 원편에는 눈길을 끄는 기사의 제목이 나열돼 있다. 「대선 출마 선언 의원 ‘변태 성관계’ 글 논란」, 「동거녀 두딸에게 8년간 몹쓸 짓...성폭행」, 「지원이, 초밀착 레깅스 ‘마운드 장악」 등의 제목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선 출마 선언 의원 ‘변태 성관계’ 글 논란」을 누르면 음주운전 무마를 대가로 여성 운전자를 성추행한 경찰에 대한 기사가 뜬다. 이는 상당한 기간 동안 스포츠조선 원편 상단의 고정 메뉴로 자리잡은 「동거녀 두딸에게 8년간 몹쓸 짓...성폭행」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다. 이 기사를 누르면 「식샤를 합시다2 종영」 기사가 뜬다. 「지원이, 초밀착 레깅스 ‘마운드 장악」이란 메뉴를 누르면 영국 프로축구 선수들이 태국에서 집단 성관계 동영상이 파문을 불러왔다는 기사가 나온다. 보기에 따라 메뉴와 다른 기사가 뜨는 것은 기술상의 실수일 수 있다. 그러나 선정적인 기사의 제목을 원편의 메뉴로 고정하다시피 해두고, 그 제목과는 전혀 다른 기사를 열리게 하는 것은, 본의든 아니든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온라인편집은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125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전 태 석

주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5년 8월 7일자 와글와글 코너의 「은근슬쩍
모음.gif」 제목의 게시물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일간스포츠 홈 페이지의 위 적시 게시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08.18. 12:40〉

〈http://wagle.isplus.joins.com/app/index.php?mid= wg_tv&category= &document_srl= 7366903〉

2. 위 게시물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게시물은 일간스포츠 홈페이지 ‘와글와글’ 커뮤니티에 오른 것으로, TV에 방영된 장면 중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간에 여성의 가슴이 접촉된 순간을 포착한 캡처 사진을 gif 애니메이터(움직이는 사진)로 제작한 것이다. 남성이 여성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선정성의 정도가 다소 높아 보이지만, 대체로 웃음을 유발하는 것들로 신문윤리강령 위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게시물에 달린 댓글이다. 출장 마사지, 출장 만남, 애인 대행, 조건 만남 등

노골적인 성매매 광고가 실려 있다. 성인 영화, 성인 만화 등의 광고도 자주 실려있다. 이런 성매매 광고성 댓글이 있는 것은 이 게시물 뿐만이 아니다.

‘와글와글’ 커뮤니티에 오른 거의 모든 게시물의 댓글은 이런 성매매 광고들로 채워져 있다. 한 두 개 정도가 이런 성매매 광고성 댓글로 채워져 있으면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이를 삭제하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댓글이 이런 성매매 광고로 채워져 있음에도 오래도록 방치돼 있는 것은 신문의 고의적인 방조를 의심케 한다. 이런 성매매 광고가 불법임은 물론이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특히 해로운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위 게시물은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148 신문윤리강령 위반

동아닷컴 발행인 김 일 흥

주문

동아닷컴(donga.com) 2015년 9월 14일자 「여성 탈도는 유명한 사이트에서 알아보세요」 제목의 게시물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동아닷컴의 위 적시 게시물 내용은 다음과 같다.



9월 14, 2015 by dvjames

카테고리 : 분류되지 않음 | 작성자 : dvjames

여성덜도는 유명한 사이트에서 알아보세요

여성덜도를 향한 나의 마음은 항상 올바른 방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삶에 더 이상 혼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성덜도라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움으로~ 클릭



고민, 생각은 이제 그만. 다른 분들도 조금씩 이런 제품이 대해 알아보시고
실제 구입을 하셔서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다. 처음만 어렵지 다음에는



쉽고 편리하고 즐거운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짜릿한 그 느낌은 이 것으로 경험해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것을 제대로 구입하신다면 그 느낌 그대로~ 재구입율이
어떤 제품보다 월등한 그 느낌을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www.love-factory.co.kr



이곳으로입장~고고고고~

9월 이벤트를 통해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해보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을 이제는 제대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http://blog.donga.com/dvjames/archives/16>〉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게시물은 동아닷컴의 메타블로그인 ‘저널로그’에 오른 것으로, 9월 15일자(캡처시각) 추천 해당 목차를 클릭하면 성인용품(딜도)의 효과에 대한 간접적인 설명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가(www.love-factory.co.kr) 나오는데 이 주소에 접속하면 곧 바로 각종 성인용품 사진과 함께 광고 문구가 뜬다.

블로거 dvjames가 작성한 이 게시물은 블로그 때문에 “「성인쇼핑몰 러브팩토리」 성인용품사이트 러브팩토리입니다”라고 명시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블로그를 개설했음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다. ‘저널로그’의 검색창에 ‘딜도’ 혹은 ‘성인용품’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비슷한 게시물이 20여개 나타나며 모두 성인용품 광고사이트로 연결되고 있다. 동아닷컴은 블로거로 가장한 성인용품업자가 ‘저널로그’를 악용, 자신의 업소를 광고하고 있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위 게시물은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149 신문윤리강령 위반

동아닷컴 발행인 김 일 흥

주문

동아닷컴(donga.com) 2015년 9월 21일자 「이별 통보에 화난 남성, 여친 영

덩이에 히로뽕 주사」 제목의 게시물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동아닷컴은 위 적시 게시물을 다음과 같이 게재하였다.

『이별 통보에 화난 남성, 여친 엉덩이에 히로뽕 주사
9월 21일, 2015 by jasonlim87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4대 약 척결이 공수포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의문도 든다.

뉴스스에 따르면 부산 영도경찰서는 21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 씨(39)를 구속했다. 이 씨는 13일 오전 5시 20분쯤 부산 영도구 여자친구 A 씨(42)의 집에 침입한 뒤 잠든 A씨의 엉덩이에 필로폰 주사를 투약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일명 히로뽕으로 불리는 필로폰을 인터넷으로 구입했다. 범행 당시 그는 환각상태였으며 A 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문도 열어주지 않자 화기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http://blog.donga.com/jasonlim87/archives/1460>>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게시물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한 이 모 씨가 구속됐다는 기사를 한 네티즌이 동아닷컴의 메타블로그인 '저널로그' 난에 올린 것으로, 기사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여성의 외설스런 사진이 기사보다 더 크게 실려 있다. 필로폰의 해악을 알리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런 사진을 실은 것은 독자의 관음증을 부추기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언론사는 블로거의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사회 통념 상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가릴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위 적시 게재물은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3084 신문윤리강령 위반

조선닷컴 발행인 김 찬

주문

조선닷컴(chosun.com) 2016년 1월 31일자 「노회찬, 노원병 대신 창원 성산 출마 확정 ... 다음달 1일 공식 선언」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조선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노회찬, 노원병 대신 창원 성산 출마 확정 ... 다음달 1일 공식 선언

강○○ 기자 입력 2016.01.30 18:21

①정의당 노회찬<사진> 전 의원이 오는 4월 20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성산에 출마한다.

②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3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노 전 의원이 창원에서 당의 전략후보로 출마하기로 했다”고 ①정의당 노회찬(사진)전 의원이 오는 4월 20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성산에 출마한다.

②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3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노 전 의원이 창원에서 당의 전략후보로 출마하기로 했다” 밝혔다.

③앞서 정의당은 이날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심상정 대표가 당내 의견을 수렴해 출마를 요청했고, 노 전 의원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변인은 “지역에서 노 전 의원에게 영남의 진보벨트 복원을 위해 나서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다음 달 1일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당초 노 전 의원은 자신의 옛 지역구이자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의 현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과 창원 성산을 놓고 고민해 왔다.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17·18대 국회에서 당선됐던 창원 성산은 제조업체가 밀집해 노조 조직률이 높은 곳으로 현재는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의 지역구이다.

19대 총선에서 노원병에 당선됐던 노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2월 14일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 대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고, 이후 치러진 재보선에서 안 의원이 당선됐다.

노 전 의원이 창원 성산 출마로 방향을 틀면서 노원병에선 현역인 안 의원,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혁신위원 등이 맞붙을 전망이다.

②밝혔다.

③앞서 정의당은 이날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심상정 대표가 당내 의견을 수렴해 출마를 요청했고, 노 전 의원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변인은 “지역에서 노 전 의원에게 영남의 진보벨트 복원을 위해 나서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다음 달 1일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당초 노 전 의원은 자신의 옛 지역구이자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의 현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과 창원 성산을 놓고 고민해 왔다.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17·18대 국회에서 당선됐던 창원 성산은 제조업체가 밀집해 노조 조직률이 높은 곳으로 현재는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의 지역구이다.

19대 총선에서 노원병에 당선됐던 노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2월 14일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 대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고, 이후 치러진 재보선에서 안 의원이 당선됐다.

노 전 의원이 창원 성산 출마로 방향을 틀면서 노원병에선 현역인 안 의원,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혁신위원 등이 맞붙을 전망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30/2016013001481.html>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 가지 내용(①+②+③)을 반복 게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순서가 뒤죽박죽이어서 독자가 읽기에 매우 불편하다.

물론 제작 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됐으리라 짐작되나 2월 4일 18시 20분 현재 입력한 지 닷새가 지나도록 이 같은 상태로 방치한 것은 언론으로서 제 구실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